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만공 스님(1)

학인, 佛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공, 네 눈 앞에 있느니라

어떤 학인이 만공(滿空:1871~1946) 선사에게 물었다. "불법(佛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 "눈앞에 있다면 왜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나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느니라."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것이 있기 때문이다'고 일러주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라고 애지중지하며 사랑해 온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인 아집(我執)과 아상(我相)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가르침이다. 더구나 이 '나'에 대한 집착 위에도 '나'를 포함한 객관적 사물과 현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알고 집착하는 법집(法執)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송산 스님은 '보는 자가 여래다(卽見如來)'라는 주제의 법문에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허한(淸淨) 마음을 유지하면 볼 때, 들을 때, 냄새맡을 때, 맛볼 때, 만질 때, 너와 모든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만물은 언제나 하나이다. 하늘을 볼 때 하늘과 하나이다. 설랑을 맛볼 때 설랑과 하나이다. 소가 '음메' 하고 하면 바로 그때 소와 하나이다." <선의 나침반> 송산 스님은 본성(本性)을 깨닫는 길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나'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는 아집·아상을 버려야
눈 앞의 '진리' 깨달을 수 있어

진리는 항상 눈앞에 있다. 불법은 지금 코앞에 있다. 그것은 언제나 없는 곳이 없다. 선사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면 눈에 가득한 그대로가 불국토라고 말한다. 천태덕소 스님은 "마음 밖에는 법이 없으니(心外無法), 눈에 가득 푸른 산이네(滿目靑山)"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촉목보리(觸目菩提: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깨달음)', '촉사이진(觸事而眞: 손에 닿는 것 그대로가 진실)', '도무소부재(道無所不在: 도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말들이 이런 진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뜬 만공 스님 역시 "불법이 네 눈앞에 있다"고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촉목보리(觸目菩提)의 도리를 깨달으면 사바세계에서도 극락의 삶을 보고 즐길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 뜬 장님으로 평생 캄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만공 스님은 불법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나(我)라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만물은 언제나 하나이다. 하늘을 볼 때 하늘과 하나이다. 설랑을 맛볼 때 설랑과 하나이다. 소가 '음메' 하고 하면 바로 그때 소와 하나이다." <선의 나침반> 송산 스님은 본성(本性)을 깨닫는 길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나'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면 볼 수 있을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한 생각을 일으켜 자기를 찾으면 곳곳에서 그르칠 것이다"는 고인들의 말이 있다. 보려면 순간에 볼 것이요, 한 순간이라도 머뭇거리면 벗어나고 만다(動念卽乖)는 것이다. 만공 스님 입적 후에도 문도회에서 출간한 법어집 제목이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는 과연 무엇일까? 김성우 객원기자

30여 년 흔들림 없이 '철야정진'

한국의 유마 거사로 존경받았던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제자들의 모인인 보림회가 스승의 입적 후에도 중단없이 용맹정진을 이어 온 것은 청봉 정근호(56·사진) 거사의 드러나지 않은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림회의 철야정진은 백봉 거사가 '무자' 화두를 타파하여 확실히 한 후 재가 수행자를 개요(開悟)시키는 방편으로 주말 및 일주일-연휴식의 철야정진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74년 여름 철야정진때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백봉 거사는 85년 여름 23회까지 직접 제자들을 지도했으며, 입적한 이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함께 설법을 통해 제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공부인을 양성했던 것이다.

청봉 거사 역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74년 1주일 용맹정진을 시작으로 철야정진을 계속한 결과 77년 여름 철야정진, 82년 동계 철야정진에서 각각 체험을 얻고 득력(得力)함으로써, 철야정진의 중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철야정진 통해 화두 타파·법외 체험

청봉 거사가 처음 선(禪)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것은 74년 여름 철야정진 때였다. 하지만,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77년 여름 철야정진 때였다. 당시 선방에 시계가 있었는데 잠선을 시작해서 1-2분만 지나면 시계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오직 파만 들렸다. 그러자 어느 순간 화두가 딱 끊어지면서 어떠한 실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치 포항제철 같은 커다란 공장에서 엄청난 기계들이 돌아가고 그 소음에 사 람잡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정적으로 자기 기계가 딱 멈췄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적적(寂寂)이라 할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누구나 1초도 안 쉬고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흥분만 멎었습니다."

居士禪의 리더들 ④ 청봉 정근호 (서울 성북동 길상사 사무장)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림선원(조실 목산 스님). 이 절의 선방에서는 매주 토요일 20여 불자들이 어김없이 밤을 꼬박 새우며 정진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1965년 창립된 보림회(www.borim.co.kr)가 이렇게 매주 철야정진과 여름·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온 지는 어언 34년. 올해는 서울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제67회 하계철야 정진법회가 열린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 동산이 물 위를 간다)' 화두의 답이 저절로 나왔다. 무언가라고 표현할까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 마치 정해진 답처럼 거침없이 생각이 나서 종이에 적었다.

"여러한 칼을 들고 쫓고 쫓을 새, 갈 곳 없는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 내 집안 소식을 토하는구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할 일도 많았던 내 집안 일이 하나도 할 일 없는 그대로구나."

백봉 거사는 이 글을 읽어 보고 고개를 끄덕 끄덕 하더니 설법시간이 시작되자 대중들 앞에서 글을 읽어 주었고 "전군(淸淨)이 화두를 깬다"고 말했다.

청봉 거사는 82년 동계 철야정진 때도 다시 한번 법외(法外)를 체험한다. 이때 백봉 거사는 공경인(空勤人: 불생불멸하는 본래 면목을 상징)에 대한 설법을 하였는데, 어느 때와는 달리 자신이 바로 공경인이라는 실감이 절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공경인의 분상에서 공경사(空勤事)를 굴린다는 이 도리만 안다면 앞으로 나를 동안(동안) 출뎌 줄 것이 없어."

스승의 이런 법문을 들으며 느낀 청봉 거사의 법음은 처음 화두를 깬 때와 또 달랐다. 적적하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주옥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자 백봉

거사는 도반들에게 "전군이 설법을 할 수 있는데, 장기도 안 간 총각이 말이야" 하고 웃었다. 스승은 청봉의 77년 화두 타파에 이어 82년의 체험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백봉 거사의 '새말귀' 기풍 이어

참선 수행자에게 화두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방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4시간 내내 공부를 지어 갈 수 있는 스님들과는 달리 거사들이 화두를 순일하게 가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가자들은 기존의 화두법귀: 우리말 표현으로는 순일하게 화두를 듣기 어렵기에 백봉 거사는 새로운 화두인 '새말귀(新話頭의 우리말 표현)로서 한결같이 공부할 지어 나갈 수 있는 거사(居士)를 내세웠다. 즉, 이전의 화두가 먼저 의심을 하고 들어간다면 '새말귀'는 설법을 통해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이 몸뚱이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法身)이 성품이 없는 색신(色身)을 통해 항상 굴린다(은다)는 사실을 알아서 공부하고 들어갈 실천하는 화두법귀인 것이다.

청봉 거사는 일상 속에서 새말귀 화두로 공부하는 예를 이렇게 설명한다.

"운전수인 경우 운전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손을 시켜서 운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할 잘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대로 새말귀를 지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응용하면 행주좌와 어복동정 그대로가 모두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봉 거사의 '새말귀'는 화두 타파 이후의 보인(保任: 중생의 오랜 습기를 제거하고 깨침을 누리고 쓰는 공부) 공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옛 선현들도 견성을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오산(悟後) 공부과정에서 상태(聖胎)를 길렀다는 것이다.

스승 유교 8년만에 완간 작업

스승의 입적 후, 청봉 거사는 도반들이 각자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 법문 테이프 3백여 개를 모두 모았다. 또 스승이 탈고한 인쇄되지 않은 <선문염송> 원고 10권부터 15권을 추가해 8년만에 완간하였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한 번도 빠짐 없이 직접 녹음을 하고 주말 철야정진을 이끌고 있다. 낮에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의 사무장 소임을 보면서 밤이면 스승의 유교(遺稿) 출판 작업과 참선으로 쉴 틈이 없는 청봉 거사. 한없이 겸허하고 부지런한 그를 만나 본 사람들은, 세간에 사는 수행자가 어떻게 하십니까(下心)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부해야 할 지를 저절로 받게 된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nia@hanmail.net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마시는 9인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파트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담주사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수행개시편... ●영화미소 선수련회-강화 연동국제선원은 6월 23일-27일 20일 영화미소 선 수련회를 연다. 영국인 출신 선배 스님이 임을 스승으로 참여하며 하루 10시간 동안 좌선, 경행하는 정진 프로그램이다. (032937-7033) ●선우회 철야정진-화계사 선우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 30분까지 국제선원에서 참선 철야정진 법회를 연다. 선우회 권위성 화계의 지도로 108배 및 명예, 참선 개인 점검 등을 실시한다. (02900-4326) ●차명상 수련회-김천 직지사는 6월 23-24일 제3회 차명상 수련회를 연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차명상, 간지명상, 음식명상, 일상생활 명상 등을 수행. (054436-6174) ●마을경명 명상-서울 구로동 명상센터는 6월 22-24일 오후 6시30분~10시30분,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마을경명 임문과정을 개설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 이 론 강좌 병행. (0212082-1779)

佛心 成佛화 만트라 ㉔ 출시!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끼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기능성신발 전문 제조업체인 (주)몽스마일에서 만든 만트라成佛화 신발은 신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두 번을 놀란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래고 두 번째는 오래 걸고 등산이나 산행을 하여도 발이 아프거나 피곤하지 않는 것에 감탄한다. 요즘 중국산 저가 신발을 신고 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랜 기간 발과 신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온 몽스마일사는 신발 내부는 폭신하면서도 발의 압력을 풀고루 분산시켜 줘야 하고 아치와 용전을 받쳐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캐주얼, 여행, 운동, 산행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과 모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최고다. 가격 98,000원

모기, 깔다구, 날벌레 꿈쩍마!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거나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발발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환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비전전 자에서는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기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3-4m에는 야간해충이 없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공인, 사찰, 식당, 가든, 펜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가격은 20W는 22,000원, 45W는 48,000원에 특별보급하고 있다. [모기퇴치 범위] ●사용장소: 사찰, 공원, 식당, 가든, 펜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현관, 거실, 아이방, 놀이방, 도서관 등

옷가네 토종참옷...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파리박멸... 파리가 많은 곳에 놋뚜기만 하면 끝! 세계 70개국 수출!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로 유인!... 파리는 파리왕(스텐드형) 350mm×330mm×240mm... 끈끈이를 붙여 놓으면 외관상 보기가 싫어 너무도 민폐는 알미운 파리!! 한·중 합작으로 세계특허를 받아 70여개국

구입할 꼭 확인을... ●내용량: 1박스(80㎡×60㎡) 2개월분 ●1병(1.5L) 상담문의: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080-838-3366